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 미국과 멕시코를 중심으로 -

Equity in Local Education Finance

-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정 형 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주저자)

홍 성 우 (경희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연구원- 공동저자)

배 수 호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교신저자)

Abstract

Hyong-Su Chong / Sung-Woo Hong / Suho Bae

Equity issues are one of major controversial topics in local education finance. This paper focuses on equity issues across racial groups and levels of regional personal income in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To look at the three aspects of equity (i.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it employs a panel data covering 50 state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time period of 1992-2006 and a panel data covering 31 provinces in Mexico during the period of 2000-2007. Equity is measured as spending on K-12 education per capita, per pupil, or per 10,000 dollars (in case of Mexico, per 10,000 pesos).

In the United States, equity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over the data period in terms of vertical equity, while it still needs to be improved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In Mexico, however, equity has not been improved at all over the period in terms of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and fiscal neutrality.

주제어 :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지방교육재정, 비교연구

Key Words :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fiscal neutrality, local education finance, comparative study

* 이 연구는 정형수(2009)의 석사학위논문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 미국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를 수정·발전시킨 것임.

I. 서론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과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ies)를 강하게 띄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교육재정의 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의 공평성 시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정현석, 2008; Armour-Garb, Lucy, & Gais, 2009; Bae & Gais, 2007). 공평성은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일반 정책분야에서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문분야에 따라 공평성의 개념에 대한 관점이 다르고, 학자들 간에도 용어 정의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공평성이라는 개념이 평등성, 균등성, 형평성, 또는 공정성 등의 용어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김영철, 1993: 45; 김왕복, 1996; 우명숙, 2007), 공평성의 개념 또한 세부적으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중립성(균등기회원칙), 적정성, 효과성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되고 있다.

교육영역에서 공평성은 교육기회의 배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모든 개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선점을 위한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배 방식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로서 교육이 분배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분배하는 방식에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적절한 기준이 지향하는 바를 공평성이라 말할 수 있다(허병기, 1989: 1-2; 윤홍주, 2005: 111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의 사례를 빌어 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투입요소에서의 공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당 교육비 지출, 인구당 교육비 지출,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을 인종 구성별, 소득수준별에 따른 공평성 문제는 없는지 분석하고자 한다(Oden & Picus, 1992).

우선 이 연구에서 멕시코 사례를 다루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재정 연구는 지나치게 미국을 비롯한 몇몇 선진국에 국한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자치재원 마련 및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 국가간 비교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II. 공평성의 개념과 기존 연구 검토

교육재정 분야에서 공평성(equity)과 평등성(equality)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반상진, 2001).¹⁾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교육재정의 공평성은 평등성보다는 광의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평등성은 교육재정의 양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공평성은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교육의 질적인 측면까지 확대하여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반상진, 2001). 달리 표현하면, 공평성은 평등성(equality)과 함께 공정성(fairness)을 포함한다. 물론 교육재정의 평등성 확보가 교육재정 공평성의 실현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재정의 평등성은 공평성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반상진, 2001).

여러 학자들이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관해 언급하였다(Alexander, 1982; McMahon, 1982; Berne & Stiefel, 1984; Oden & Picus, 1992). 특히 Oden & Picus(1992)에 따르면,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을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재정적 중립성(fiscal neutrality),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수평적 공평성 원리에 따르면 모든 학생들은 교육재정의 분배측면에서 균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윤희주(2005)의 연구에서는 수평적 공평성을 경제적으로 동일한 여건에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동일한 여건과 처지에 있는 학생에게는 동등한 양의 교육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윤희주, 2005: 111). 수직적 공평성 원리는 학생들의 특성, 재능, 신체적 차이 등에 따라 교육재정 분배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상진, 2001). 즉, 수직적 공평성은 여건이 다른 사람은 합리적 근거에 의해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윤희주, 2005: 111). 예를 들어, 이 관점에서 보자면, 정신적, 신체적, 언어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공평하다. 한편, 성별, 인종별 교육재정 배분에서의 차이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본다(반상진, 2001). 재정적 중립성 원리는 지역간 재정능력의 차이로 인해 교육재정 배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재정적 중립성은 학부모나 지역(교육구)의 재정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비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세대간 공평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윤희주, 2005: 111). 효과성 원리는 두 학생집단간의 투입에 따른 효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두 집단간의 단위당 투입 효과가 같아야 교육재정의 효과성 원리가 실현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측면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교육재정의 65% 이상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44.9%)을 제외하고, 모

1) 공평성은 '공정성' 혹은 '형평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김왕복, 1996; 우명숙, 2007).

든 시·도 지방교육비의 세입재원 절반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전남(92.4%), 충남(84.1%), 전북(83.3%), 강원(82.6%), 경북(81.2%)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 교육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중앙의 재정지원은 줄어든다. 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인구집중지역은 지방교육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박정수, 2006).

따라서 교육재정의 공평성에 있어 도·농간, 지역간, 소득계층간 차이는 교육재정 분야에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 관한 이슈들은 최근에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이혜진, 2006; 최순영, 2003; 류방란, 2007; 정현석, 2008), 교육재정의 배분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김규석, 1992; 신무섭, 2000; 손용배, 2003; 최순영, 2003)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시·도별 지방교육비 세입재원 내역 (2004년 결산 기준)

	국가지원금		시·도전입금		자체수입		합계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서울	22,449	44.9	22,485	45.0	5,015	10.0	49,949	100
부산	14,845	64.9	5,094	22.3	2,924	12.8	22,863	100
대구	10,693	72.3	2,621	17.7	1,483	10.0	14,797	100
인천	11,426	59.8	3,287	17.2	4,383	23.0	19,096	100
광주	7,544	76.1	1,320	13.3	1,049	10.6	9,913	100
대전	6,884	64.9	1,811	17.1	1,919	18.1	10,614	100
울산	5,784	61.3	1,257	13.3	2,398	25.4	9,439	100
경기	34,968	53.1	14,006	21.3	16,841	25.6	65,815	100
강원	10,733	82.6	1,360	10.5	895	6.9	12,988	100
충북	9,289	78.3	1,013	8.5	1,556	13.1	11,858	100
충남	13,608	84.1	2,117	13.1	463	2.9	16,188	100
전북	13,983	83.3	1,038	6.2	1,764	10.5	16,785	100
전남	17,247	92.4	1,011	5.4	415	2.2	18,673	100
경북	17,320	81.2	1,615	7.6	2,387	11.2	21,322	100
경남	18,378	75.1	2,715	11.1	3,375	13.8	24,468	100
제주	3,146	75.7	761	18.3	250	6.0	4,157	100
합계	218,297	66.4	63,511	19.3	47,117	14.3	328,925	10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박정수(2006) 재인용.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멕시코에서의 지방교육비 지출의 공평성 분석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인구구성비율, 일인당 지역소득에 따라 미국 50개 주, 멕시코 31개 주를 분류한다. 미국의 경우 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흑인비율에 따라 50개 주를 '흑인비율이 높은 주'(15개 주), '흑인비율이 중간인 주'(20개 주), '흑인비율이 낮은 주'(15개 주)로 분류하고, 일인당 지역소득에 따라 '소득이 높은 주'(15개 주), '소득이 중간인 주'(20개 주), '소득이 낮은 주'(15개 주)로 분류한다. 이들 집단간에 학생당 교

육비, 인구당 교육비, 소득당 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있어왔는지를 1992년부터 2006까지 지출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멕시코의 경우 주 전체인구 대비 인디헤나 인구비율에 따라 31개 주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높은 주’(10개 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중간인 주’(11개 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낮은 주’(10개 주)로 각각 분류하고, 일인당 지역소득에 따라 ‘소득이 높은 주’(10개 주), ‘소득이 중간인 주’(11개 주), ‘소득이 낮은 주’(10개 주)로 각각 분류한다. 멕시코 역시 이들 집단간에 학생당 교육비, 인구당 교육비, 소득당 교육비 지출에서 차이가 있어왔는지를 2000년부터 2007까지 지출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과 멕시코 국가간에 교육재정의 공평성 측면에서 흥미로운 차이는 없는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종구성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수직적 공평성 여부를, 소득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 여부를 각각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흑인인구 자료 및 교육비 지출에 관한 자료 등은 미국 인구조사국(Bureau of the Census)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각 주별 개인소득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 BEA), K-12 학생 수²⁾는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에서 각각 확보하였다.³⁾ 한편, 멕시코의 경우는 멕시코 국립통계국(Sistema Nacional de Informacion Estadistica y Geografia)을 통해 인디헤나 인구에 대한 2000년과 2005년 통계자료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수집·활용하였으며, 멕시코 K-12 학생수는 멕시코의 공공교육부(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 자료를 활용하였다.⁴⁾

미국의 경우 일인당 지역소득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교육비는 주·지방정부 교육비 지출 가격지수(price index for state and loc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gross investment for K-12 education)를 각각 활용하여 2006년 달러가치로 환산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일인당 지역소득, 교육비 지출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07년 페소가치로 환산하였다.

2) 여기서는 공교육에서 유치원(kindergarten),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중·고등학교(secondary school)를 의미한다.

3) 미국 인구조사국(www.census.gov/population/www/socdemo/race/black.html)을 통한 통계자료 수집과 함께, 각주별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www.bea.doc.gov/bea/regional/spi), 미국의 교육비 지출액 관련 자료(www.census.gov/govs/www/estimate.html)와 www.census.gov/govs/www/school.html), 미국 K-12 학생수 자료(<http://nces.ed.gov/programs/digest/d95/dtab093.asp>)를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미국 학생 수는 사립학교 학생수를 제외한 공교육기관의 학생 수만을 의미한다.

4) 멕시코 자료는 멕시코 국립통계국(www.inegi.org.mx/inegi/default.aspx)에서 제시하는 통계자료와 함께, 각주별 인구와 소득에 관한 자료(www.finanzas.df.gob.mx/servicios/inpc.html), 인디헤나 인구에 관한 2000년, 2005년 자료(<http://inegi.org.mx/est/contenidos/espanol/proyectos/censos/cpv2000/bd/pv2000/ptl.asp?s=est&c=10261>)를 각 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멕시코 K-12 학생수는 멕시코 공공교육부(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 출처: www.sep.gov.mx) 자료(<http://inegi.org.mx/est/contenidos/espanol/proyectos/conteos/conteo2005/bd/consulta2005/pt.asp?s=est&c=10401>)를 활용하였다. 멕시코 학생 수는 사립학교 학생수를 제외한 공교육기관의 학생 수만을 의미한다.

III. 지방교육 재정체계: 미국과 멕시코

1. 미국

2006년 미국에서 초·중등 교육에 5천 2백억 달러 이상 투자되었다. 미국 초·중등 교육재정의 주된 책임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게 있다.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초·중등 교육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재정의 부담비중에서 주정부는 1980년에 46.8%, 1990년에 47.1%, 2000년에 49.5%로 꾸준히 증가하여오다 2006년에 46.5%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연방정부의 기여폭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80년에 9.8%를 기여하였지만, 1990년과 200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6년 다시 9%로 회복하였다.

미국에서 지방정부가 교육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⁵⁾ 주정부와 더불어 교육재정재원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는 1980년 43.4%에서 1990년 46.8%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43.2%로 줄었다. 그 후 2006년에 44.4%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2> 초·중등 교육재정의 정부별 부담비중, 미국
(단위: 백만 달러, %)

	1980	1990	2000	2006
전체교육	96,881	208,547	372,943	520,643
연방정부	9,503(9.8)	12,700(6.1)	27,097(7.3)	47,553(9.1)
주정부	45,348(46.8)	98,238(47.1)	184,613(49.5)	242,151(46.5)
지방정부	42,028(43.4)	97,608(46.8)	161,232(43.2)	230,939(44.4)

자료: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NCES).⁶⁾

2. 멕시코

멕시코 지방교육 재정체계를 설명하기 전에 멕시코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국토 크기는 네 번째, 인구는 1억 명으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다. 영토는 남한 영토의 약 20배이고 31개 주(Estado)와 연방수도(Distrito

5) 엄밀히 말하면, 학교구(school district)가 주로 재산세(property tax)를 통해 교육재정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홍성우·배수호·김광우, 2009).

6) 출처: http://nces.ed.gov/programs/digest/d08/tables/dt08_171.asp 참조.

Federal)⁷⁾를 연방제 형태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 국가 명칭도 멕시코 연방(los Estados Unidos de Mexico)이다. 멕시코의 원주민이었던 인디헤나들은 현대에 이르러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멕시코 지방 곳곳에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며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고수하면서 살고 있다. 멕시코는 아스텍(azteca), 올메카(olmeca), 마야(maya),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등의 고대문명을 가진 3500년 역사의 유서 깊은 나라로, 중남미에서는 비교적 낮은 10%의 문맹율과 잘 조직된 공교육제도를 갖추고 있다(우덕룡, 1996). 멕시코는 제도적으로 교육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방정부의 교육비예산 규모가 국방예산보다 많으며 교직원 수가 군인 수를 능가 한다(Felipe de Jesus Calderon, 1996:58).

멕시코의 교육과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K-12라고 할 수 있다. 1년의 초등학교 이전과정(preescolar), 6년의 초등학교과정(primaria), 3년의 중학교(secundaria), 3년의 고등학교과정(preparatoria)으로 한국의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미국 또한 초.중등 12년에 유치원 1년을 더해 13년(K-12)이므로 총 교육 연수는 같다. 다만 멕시코는 1년의 초등학교 이전과정 이전에 2년 정도의 유치원과정(kinder)이 있는데 이것은 공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⁸⁾

멕시코는 1921년 설립된 공공교육부(Secretaria de Educacion Publica, SEP)의 주도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무상교육, 평등한 교육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는 많은 사립학교에서 보다 우수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심각한 소득의 격차 뿐 만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구조는 멕시코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멕시코는 헌법으로 15세까지의 의무교육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경제적인 사정으로 공교육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정부에서도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멕시코는 한국과 유사하게,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지원한다. 멕시코 국립교육평가원(Instituto Nacional para Evaluacion de la Educacion, INEE)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멕시코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구성은 다음 <표 3>과 같다.

7) 공평성 분석에서는 연방수도(Distrito Federal)를 제외하였다.

8) 그 명칭이 유치원(kinder)이라서 미국이나 한국의 경우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설명하였다.

〈표 3〉 지방교육재정의 구성, 멕시코

단위: %

조사연도	연방정부	주정부+시 교육구	공교육비 총액
1995	89.9	10.1	100
2000	81.0	19.0	100
2005	78.6	21.4	100

자료: 국립교육평가원(INEE, 2005).⁹⁾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멕시코 지방교육 재정체계는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거의 모든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95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10년 동안 주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교육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표 4〉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 멕시코

단위: %

조사연도	전국평균	공교육비				사교육비
		합계	연방정부	주정부	시교육구	
1980	4.90	4.57	3.72	0.78	0.07	0.34
1985	4.12	3.81	3.20	0.59	0.02	0.31
1990	4.02	3.70	3.02	0.66	0.01	0.32
1995	4.93	4.70	4.22	0.46	0.01	0.23
2000	6.42	5.02	4.07	0.95	0.01	1.40
2005	7.20	5.55	4.36	1.17	0.01	1.66

자료: 국립교육평가원(INEE, 2005).¹⁰⁾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에서 5년 간격으로 2005년까지 조사한 멕시코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이러한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5년간 멕시코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4.90%(1980년)에서 7.20%(2005년)로 2.3%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1980년에는 0.34%이던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9) 출처: www.inee.edu.mx/images/stories/publicaciones/panorama_educativo/2005/recursos_sistema/panoramaeducativogastonacional.pdf 참조.

10) 출처: www.inee.edu.mx/images/stories/publicaciones/panorama_educativo/2005/recursos_sistema/panoramaeducativogastonacional.pdf 참조.

2005년에는 1.66%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는 교육재정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IV.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분석결과

Oden & Picus(1992)에 따르면,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효과성 등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를 사례로 인종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직적 공평성을 평가하고, 소득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1. 미국

1) 흑인 구성비율별 교육재정의 공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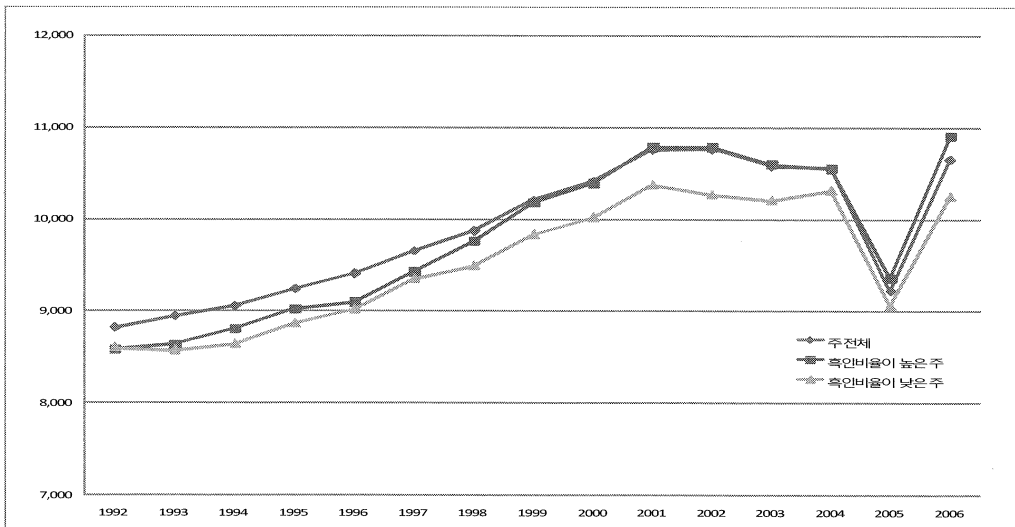
미국에서 교육재정의 공평성이 인종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흑인 구성비율에 따라 50개 주를 '흑인 비율이 높은 주'(15개 주), '흑인 비율이 중간인 주'(20개 주), '흑인 비율이 낮은 주'(15개 주)로 각각 분류하였다. 흑인 구성비율은 주 전체인구 대비 흑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였으며,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5년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주별 흑인 구성비율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Mississippi(36.45%), Louisiana(32.24%) 등을 비롯한 7개 주에서는 평균 흑인 비율이 20%를 웃돌았으며, Montana(0.51%), Vermont(0.69%), Idaho(0.69%) 등을 비롯한 7개 주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1>은 학생당 교육비 지출에 있어 흑인 구성비율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1992년부터 2006까지 보여주고 있다. 1992년을 제외하고는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에 비해 학생당 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2006년에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 학생당 평균 교육비 지출이 10,898 달러로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에서의 평균 지출비인 10,241 달러 보다 약 657달러 정도 많았다.

<표 5> 흑인 구성비율,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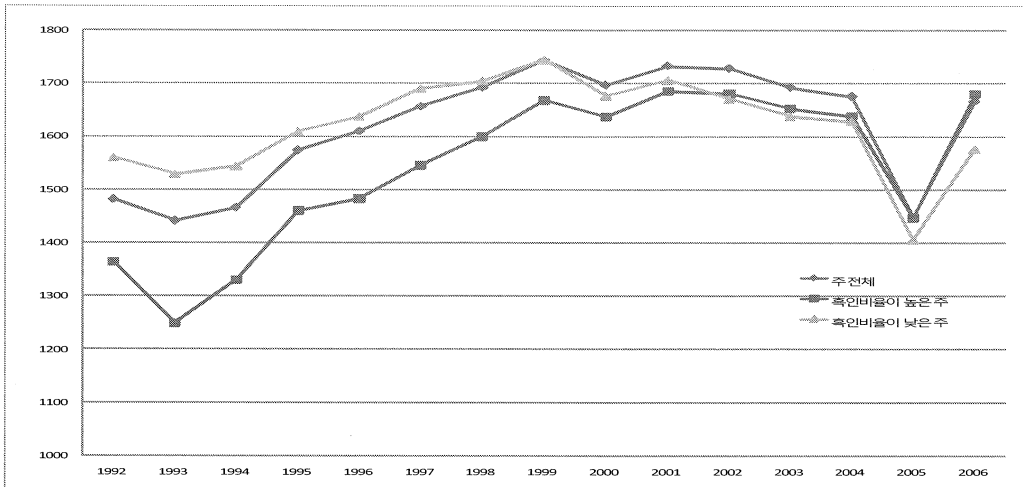
분류	주	흑인 인구비율 (%)
흑인 비율이 높은 주	Mississippi	36.45
	Louisiana	32.24
	South Carolina	29.77
	Georgia	28.75
	Maryland	27.97
	Alabama	26.02
	North Carolina	22.08
	Virginia	19.98
	Delaware	19.56
	New York	17.80
	Tennessee	16.65
	Arkansas	15.99
	Illinois	15.35
	Florida	15.28
	New Jersey	14.67
흑인 비율이 중간인 주	Michigan	14.51
	Texas	12.14
	Ohio	11.76
	Missouri	11.43
	Pennsylvania	10.22
	Connecticut	9.79
	Indiana	8.63
	Oklahoma	7.93
	Nevada	7.62
	Kentucky	7.52
	California	7.32
	Massachusetts	6.63
	Kansas	6.18
	Wisconsin	5.83
	Rhode Island	5.68
	Colorado	4.45
	Alaska	4.31
	Nebraska	4.27
	Washington	3.77
Arizona	3.72	
흑인 비율이 낮은 주	Minnesota	3.61
	West Virginia	3.38
	Hawaii	2.81
	New Mexico	2.63
	Iowa	2.31
	Oregon	2.03
	Utah	1.06
	Wyoming	1.03
	New Hampshire	0.95
	South Dakota	0.88
	North Dakota	0.83
	Maine	0.71
	Idaho	0.69
Vermont	0.69	
Montana	0.51	
전체 평균:		10.33

<그림 1> 학생당 교육비 지출 (달러), 흑인 구성비율 기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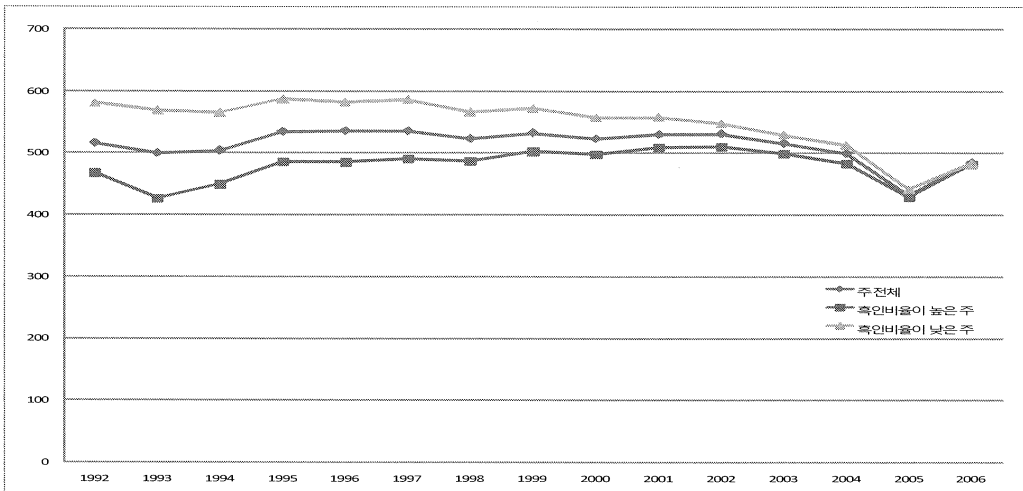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에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에서 평균적으로 1,559 달러를 인구당 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같은 해에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는 1,365 달러를 지출하여 약 195 달러의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2002년에 와서는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이 오히려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 보다 인구당 교육비로 약 11달러 정도 더 지출하였다. 2006년에는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는 1,680 달러를 인구당 교육비에 지출한 반면, 흑인비율이 낮은 주들에서는 1,576 달러를 지출하여 약 104 달러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림 2> 인구당 교육비 지출 (달러), 흑인 구성비율 기준, 미국



<그림 3>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달러), 흑인 구성비율 기준, 미국



<그림 3>에서는 일인당 지역소득 일만 달러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1992년부터 2006년까지 보여주고 있다. 1992년에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에서는 일만 달러당 교육

비로 580 달러 정도 지출하였고,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는 468 달러 정도 지출하였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93년을 제외하고는 그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고, 2006년에 와서는 흑인 비율이 낮은 주들에서는 평균 교육비 지출이 483 달러, 흑인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는 482 달러로 그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종합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흑인 구성비율에 따른 교육비 지출에 있어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특히, 수직적 공평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소득별 교육재정의 공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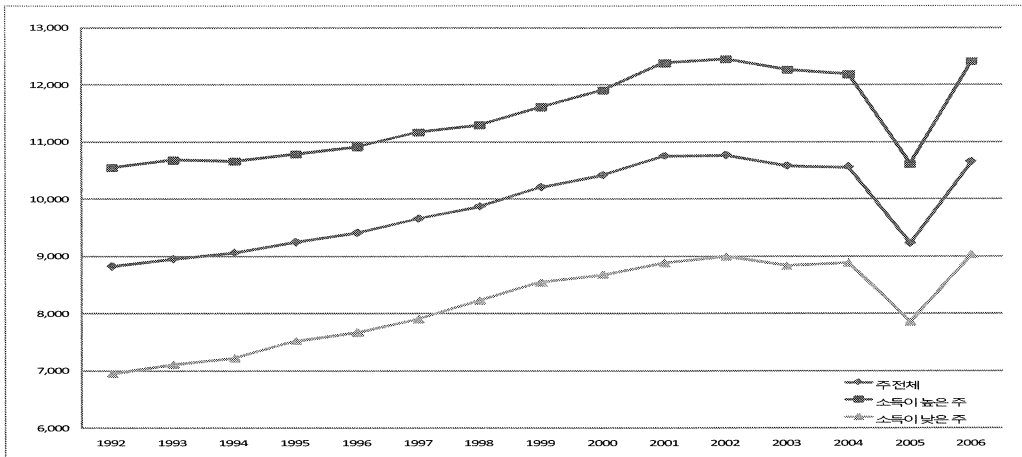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2년부터 2006년까지 각 주별 일인당 지역소득(personal income per capita) 평균치를 기준으로 미국 50개 주를 ‘소득이 높은 주’(15개 주), ‘소득이 중간인 주’(20개 주), ‘소득이 낮은 주’(15개 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서는 소득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시간적 추이에 따라 꾸준히 개선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6> 일인당 지역소득,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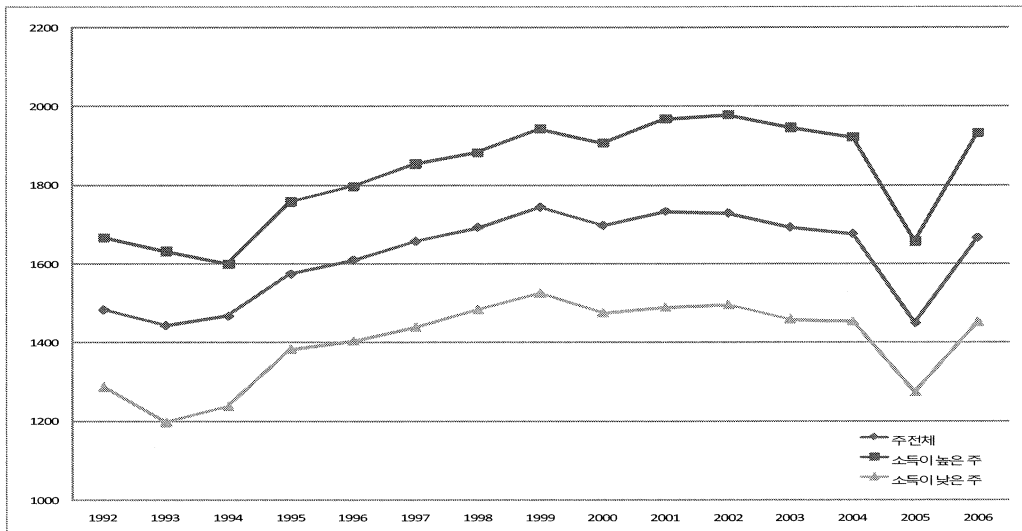
분류	주	일인당 지역소득 (달러)
소득이 높은 주	Connecticut	45,475
	New Jersey	42,097
	Massachussets	40,739
	New York	38,960
	Maryland	38,531
	New Hampshire	36,064
	Colorado	35,703
	Illinois	35,639
	Minnesota	35,269
	Delaware	35,241
	Virginia	34,954
	Nevada	34,808
	Washington	34,366
	California	34,255
	Alaska	34,189
소득이 중간인 주	Rhode Island	33,699
	Pennsylvania	33,462
	Wyoming	32,553
	Florida	32,488
	Michigan	32,437
	Wisconsin	31,909
	Nebraska	31,455
	Ohio	31,418
	Oregon	31,141
	Kansas	31,116
	Texas	30,924
	Vermont	30,853
	Georgia	30,780
	Hawaii	30,693
	Missouri	30,502
	Indiana	30,327
	North Carolina	30,265
	Iowa	30,175
	Tennessee	29,734
	South Dakota	29,401
소득이 낮은 주	Maine	29,299
	Arizona	28,788
	North Dakota	28,412
	Alabama	27,544
	Oklahoma	27,332
	South Carolina	27,288
	Idaho	27,272
	Kentucky	27,118
	Louisiana	26,823
	Montana	26,702
	Utah	26,515
	New Mexico	26,198
	Arkansas	25,640
	West Virginia	25,219
	Mississippi	24,064
전체 평균:		31,717

<그림 4>는 소득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특히,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2년 소득이 높은 주들에서는 10,544 달러를 학생당 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소득이 낮은 주들에서는 6,942 달러를 지출하였다. 이는 소득이 높은 주들이 약 3,602 달러를 더 많이 학생당 교육비로 지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을 제외하고 조사대상 기간 내내 그 격차는 3,000 달러 이상이 유지되었다.

<그림 4> 학생당 교육비 지출 (달러),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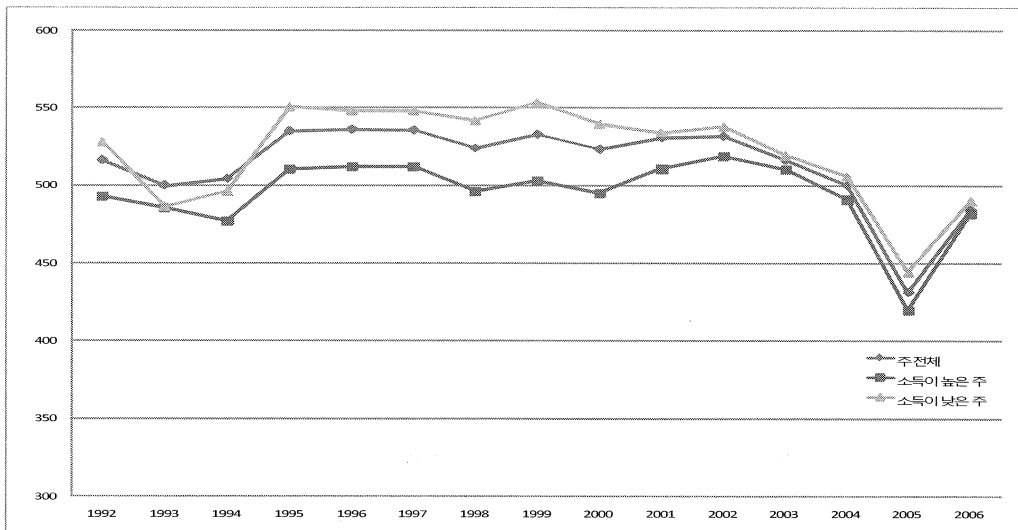
<그림 5> 인구당 교육비 지출 (달러),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미국



<그림 5>의 인구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주들과 소득이 낮은 주들간의 격차가 1992년에 380 달러에서 2006년에는 481 달러로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다. 또한 <그림 6>은 일인당 지역소득 일만 달러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주들에서 일만 달러당 교육비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주에서는 소득대비 교육재원을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 소득이 낮은 주들과 소득이 높은 주들 간의 교육비 지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달러),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미국



2. 멕시코

1) 인디헤나 구성비율별 교육재정의 공평성

멕시코에서 교육재정의 공평성이 인종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31개 주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높은 주’(10개 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중간인 주’(11개 주),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낮은 주’(10개 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주 전체인구 대비 인디헤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2000년, 2005년 두 해의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axaca(31.3%), Yucatán(30.94%), Chiapas(21.17%) 등을 비롯한 8개 주에서 인디헤나 비율이 10% 이상이었던 반면, Coahuila(0.18%), Aguascalientes(0.19%) 등을 비롯한 8개 주에서는 1% 미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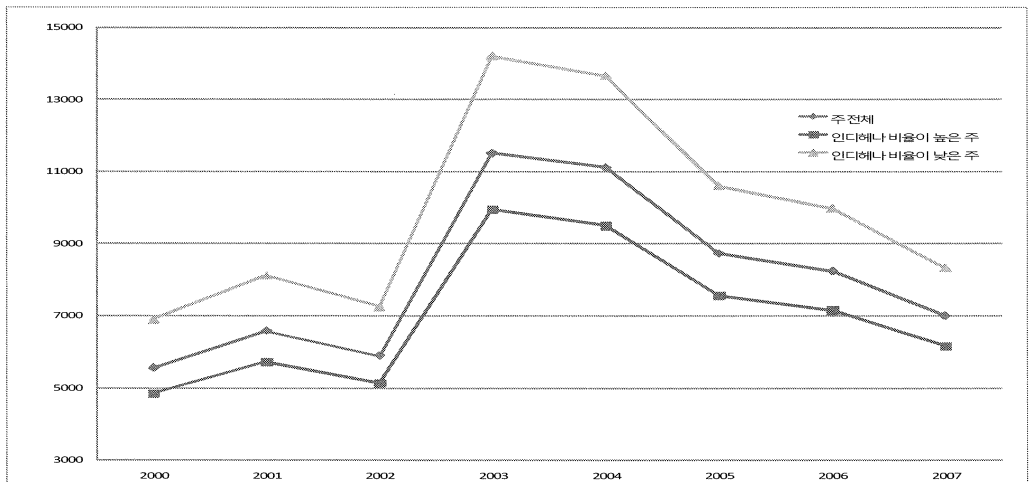
<그림 7>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학생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인디헤나 비율이 낮은 주들이 인디헤나 비율이 높은 주들보다 학생당 교육비 지출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00년 인디헤나 비율이 낮은 주들에서는 평균적으로 6,881 페소를 학생당 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인디헤나 비율이 높은 주들에서는 4,833 페소로, 두 집단간의 차이는 2,048 페소였다. 2003년에는 두 집단간의 지출

이 각각 14,197 페소, 9,935 페소로 최고 4,262 페소까지 그 격차가 벌어졌으나 2007년에는 2,160 페소로 학생당 교육비 격차가 줄어들었다.

<표 7> 인디헤나 구성비율,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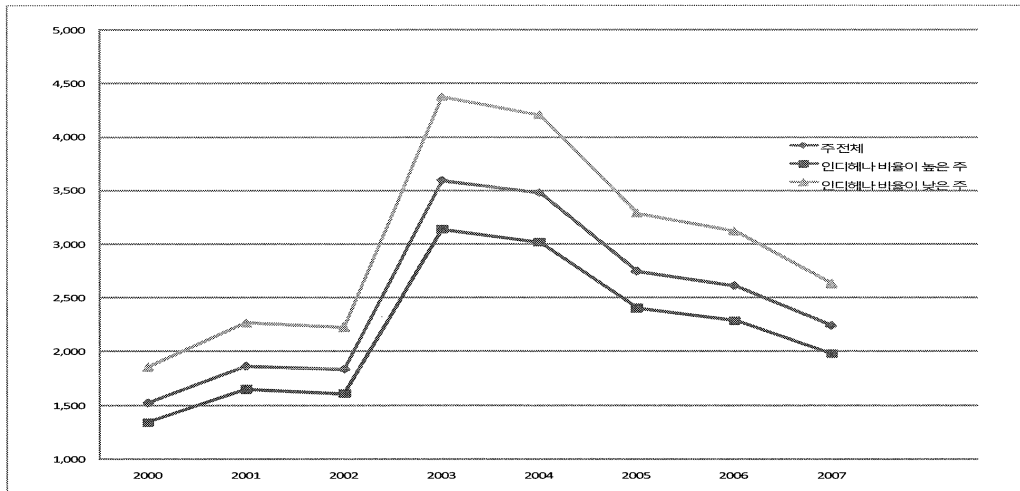
분류	State	인디헤나 비율 (2000)	인디헤나 비율 (2005)	인디헤나 비율 (평균, 2000, 2005)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높은 주	Oaxaca	31.88	30.72	31.30
	Yucatán	32.42	29.47	30.94
	Chiapas	20.15	22.20	21.17
	Quintana Roo	19.18	15.12	17.15
	Hidalgo	14.89	13.51	14.20
	Campeche	13.25	11.74	12.49
	Guerrero	11.74	12.15	11.95
	Puebla	11.15	10.12	10.64
	San Luis Potosí	10.03	9.64	9.83
	Veracruz	9.01	8.40	8.71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중간인 주	Nayarit	3.97	4.35	4.16
	Mchoacán	3.01	2.82	2.92
	Tabasco	3.21	2.60	2.91
	Chihuahua	2.76	2.88	2.82
	Estado de México	2.81	2.23	2.52
	Tlaxcala	2.70	2.22	2.46
	Sonora	2.46	2.14	2.30
	Mrelos	2.00	1.53	1.77
	Durango	1.69	1.82	1.76
	Querétaro	1.76	1.46	1.61
	Sinaloa	1.92	1.16	1.54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낮은 주	Baja California	1.58	1.19	1.38
	Baja California Sur	1.22	1.39	1.31
	Tamaulipas	0.61	0.67	0.64
	Jalisco	0.61	0.62	0.62
	Nuevo León	0.40	0.70	0.55
	Colima	0.56	0.51	0.53
	Guanajuato	0.22	0.21	0.22
	Zacatecas	0.13	0.29	0.21
	Aguascalientes	0.13	0.25	0.19
	Coahuila	0.13	0.23	0.18
전체 평균:		6.70	6.27	6.48

<그림 7> 학생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인디헤나 구성비율 기준,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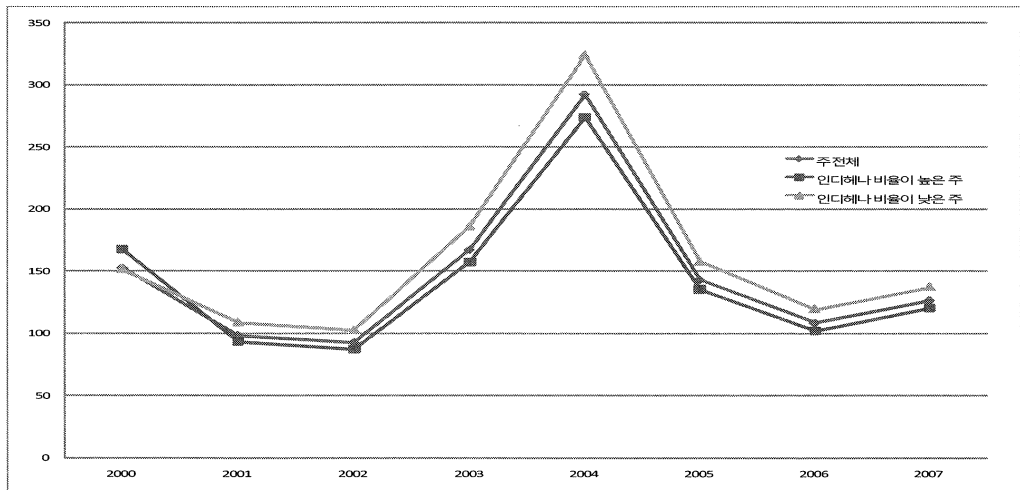
<그림 8>은 인구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위의 <그림 7>과 매우 유사하다. 2000년 인디헤나 인구비율이 높은 주들과 낮은 주들에서 인구당 교육비가 각각 1,852 페소, 1,343 페소로 이 차이가 509 페소이었다. 2003년에는 각각 4,376 페소, 3,138 페소로 최고 1,238 페소까지 그 격차가 벌어졌다가 2007년에는 648 페소로 그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었다.

<그림 8> 인구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인디헤나 구성비율 기준, 멕시코



<그림 9>는 일인당 지역소득 일반 페소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에는 인디헤나 비율이 높은 주들(167 페소)이 인디헤나 비율이 낮은 주들(151 페소)에 비해 16 페소 정도 많이 지출하다가 그 이후로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즉, 2007년에는 인디헤나 비율이 높은 주들(120 페소)이 인디헤나 비율이 낮은 주들(137 페소)에 비해 오히려 17 페소 정도 적게 지출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그림 3>에서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상반된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림 9>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반 페소), 인디헤나 구성비율 기준, 멕시코



이와 같이 <그림 7>, <그림 8>, <그림 9>를 종합하여 보면, 멕시코에서 인종구성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특히, 수직적 공평성)이 연구기간동안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였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공평성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소득별 교육재정의 공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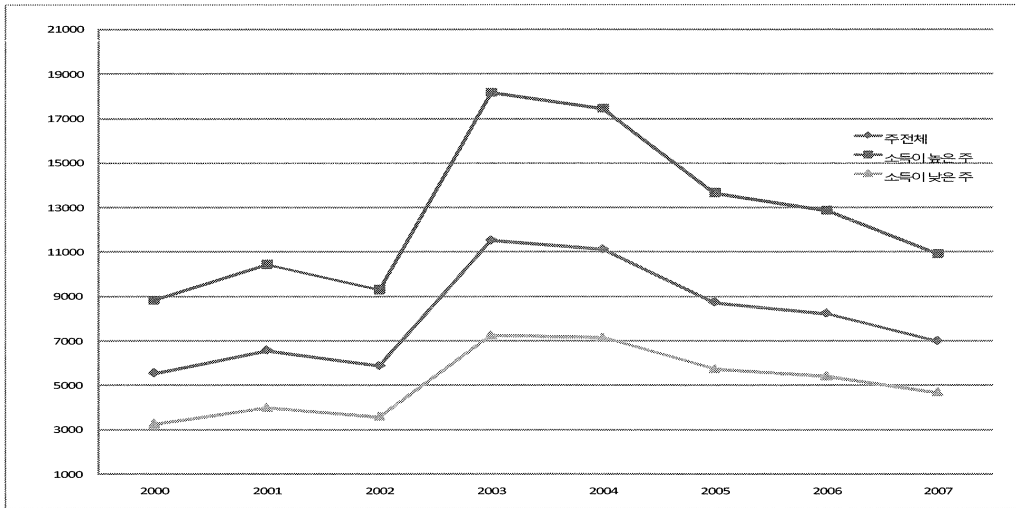
멕시코에서 지역소득별 교육재정의 공평성 실현여부와 함께 시간적 추이분석을 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각 주별 일인당 지역소득 평균치를 기준으로, <표 8>에서와 같이, 멕시코 31개 주를 ‘소득이 높은 주’(10개 주), ‘소득이 중간인 주’(11개 주), ‘소득이 낮은 주’(10개 주)로 분류하였다.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별 교육재정의 공평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0년 소득이 높은 주들에서는 8,826 페소를 학생당 교육비로 지출한 반면, 소득이 낮은 주들에서는 3,258 페소로 그 격차가 무려 5,568 페소에 이르렀다. 2003년에는 그 격차가 10,899 페소로 최고치에 이르렀으며, 2007년에 와서는 6,234 페소로 다소 줄어들었다.

<표 8> 일인당 지역소득,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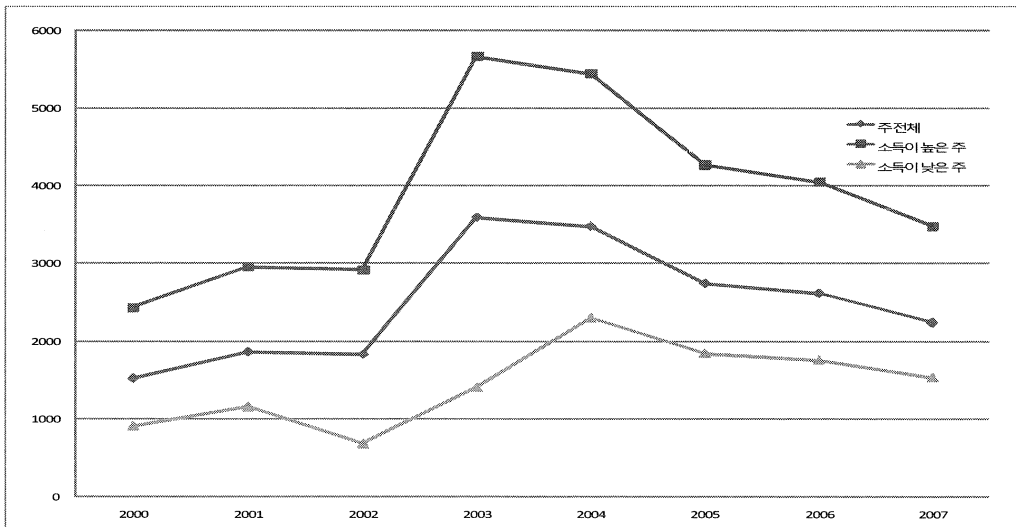
분류	주	일인당 지역소득 (페소)
소득이 높은 주	Baja California	280,990
	Campeche	261,699
	Colima	238,004
	Sonora	227,465
	Chihuahua	223,935
	Baja California Sur	221,997
	Nayarit	211,230
	Durango	206,144
	Tabasco	205,951
	Yucatán	193,800
소득이 중간인 주	Nuevo León	188,651
	Sinaloa	187,142
	Jalisco	178,277
	Zacatecas	174,692
	Tamaulipas	170,311
	Querétaro	167,626
	Coahuila	162,796
	Chiapas	156,463
	Aguascalientes	155,334
	Estado de México	148,596
	Quintana Roo	146,677
소득이 낮은 주	Veracruz	145,459
	Hidalgo	144,009
	Tlaxcala	143,813
	Michoacán	140,352
	Guerrero	138,590
	Puebla	137,455
	San Luis Potosí	135,249
	Guanajuato	127,115
	Mérida	116,884
	Oaxaca	107,168
전체 평균:		175,609

<그림 10> 학생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멕시코



<그림 11>의 인구당 교육비 지출 추이 또한 <그림 10>의 학생당 교육비 지출 추이와 매우 유사하다. 2000년에는 소득이 높은 주들이 소득이 낮은 주들에 비해 1,519 페소 정도 인구당 교육비로 더 많이 지출하였고, 2003년에 와서는 4,261 페소로 그 격차가 최고치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7년에는 1,948 페소로 인구당 교육비의 격차는 다소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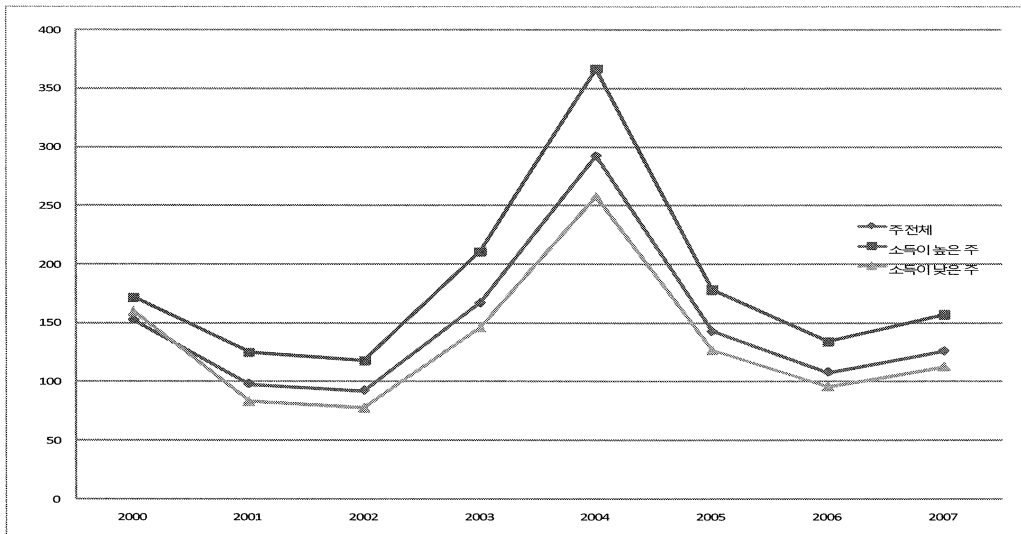
<그림 11> 인구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멕시코



<그림 12>는 일인당 지역소득 일만 페소당 교육비 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서도 소득이 높은 주들이 소득이 낮은 주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많은 돈을 교육비로 투

자하였다. 2000년 일반 페소당 교육비로 지출된 금액이 소득이 높은 주들(171 페소)이 소득이 낮은 주들(160 페소)에 비해 11 페소 정도 많았고, 이 추세는 2004년 109 페소로 커졌다가 2007년 44 페소로 다소 줄어 들었다. 이와 같이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를 종합하여 보면, 멕시코에서 소득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특히,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반 페소), 일인당 지역소득 기준, 멕시코



V. 분석결과의 논의 및 함의

이 연구는 미국과 멕시코를 사례로 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Oden & Picus(1992)의 공평성 분류 중에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미국 50개 주(1992년부터 2006년까지)와 멕시코 31개 주(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교육비 지출 추이를 분석하였다. 즉, 인종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직적 공평성을, 소득별 교육비 지출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평적 공평성 및 재정적 중립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첫째, 미국에서 교육재정의 공평성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인종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은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소득별 교육재정 배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첨 -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멕시코의 경우 교육재정의 공평성이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재정적 중립성)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인종별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소득별 공평성에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별첨 - 표 2>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대한 미국과 멕시코 국가간의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 연구에도 많은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한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헤크먼(James Heckman) 교수가 최근 한 국내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은 사회적 불평등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처방’이라고 지적하였다(중앙일보, 2010년 2월1일). 여기서 교육기회의 평등한 접근 기회 보장, 교육재정의 공평한 분배 등 교육의 공평성 구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성, 도·농간의 격차,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접근 기회 제한 등 여러 교육문제와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진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첨부

<별첨 - 표 1> 교육비 지출, 미국

흑인비율 분류	학생당 교육비 지출 (달러)	인구당 교육비 지출 (달러)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달러)
흑인비율이 높은 주	9,787	1,542	480
흑인비율이 낮은 주	9,518	1,621	549
주 전체	9,874	1,620	513
일인당 지역소득 분류	학생당 교육비 지출 (달러)	인구당 교육비 지출 (달러)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달러)
소득이 높은 주	11,453	1,829	494
소득이 낮은 주	8,149	1,403	521
주 전체	9,874	1,620	513

<별첨 - 표 2> 교육비 지출, 멕시코

인디헤나 인구비율 분류	학생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인구당 교육비 지출 (페소)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페소)
인디헤나 비율이 높은 주	6,990	2,179	142
인디헤나 비율이 낮은 주	9,865	2,993	161
전체 주	8,064	2,485	147
일인당 지역소득 분류	학생당 교육비 지출 (페소)	인구당 교육비 지출 (페소)	소득대비 교육비 지출 (일만 페소)
소득이 높은 주	12,702	3,902	182
소득이 낮은 주	5,125	1,621	132
전체 주	8,064	2,485	147

<참고문헌>

- 공은배. (2008).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규석. (1992). 「한국의 지방교육비규모 규정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동건. (1997). 미국의 지방교육재정제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12(1): 3-25.
- 김왕복. (1996).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정성 분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김영철. (1993). 공평성 기준의 재음미: 교육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20: 43-60.
- 류방란. (2007).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지수 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정수. (2006). 지방교육재정 구조개혁과 분권화 해법. 「한국행정연구」, 15(2): 217-243.
- 반상진. (2001). 교육재정의 공평성. 「교육재정경제학 백과사전」, 448-456. 서울: 하우동설.
- 신무섭. (2000). 지방교육재정배분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형평성. 「행정논총」, 38(1): 135-162.
- 손용배. (2003). 「지방교육재정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혜진. (2006). 「단위학교 교육재정의 지역간, 학교간 차이 분석: 서울특별시 공립초등학교 중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덕룡. (1996). 멕시코의 교육제도. 「북미연구」, 2: 53-66.
- 우명숙. (2007).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의 교육재정 형평성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4): 263-284.
- 윤홍주. (2005). 초등학교 학교회계의 공평성 분석: 강원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19(1): 109-132.

- 정현석. (2008).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 정형수. (2009). 「지방교육재정의 공평성 연구: 미국과 멕시코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최순영. (2003). 지방교육재정배분의 영향요인과 지역간 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3): 107-133.
- 최준열. (1993). 미국의 지방교육세제와 지방교육재정배분제도. 「교육재정·경제연구」, 2(2): 291-313.
- 홍성우·배수호·김광구. (2009). 지방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미국 주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동계학술대회」. 충북대학교. 12.4.
- 「중앙일보」. (2010). 평생소득 격차의 절반, 성인되기 전에 이미 결정 - 세계 석학과의 대화 제임스 헤크먼 시카고대 교수. 2. 1.
- Alexander, A. (1982). Concepts of Equity. In McMahon, W.W. & Geske, T.G. (ed.), *Financing Education: Overcoming Inefficiency and Inequity*, 193-214.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Armour-Garb, A., Dadayan, L., & Gais, T.L. (2009). Spending Is Up, and So Are Interstate Disparities in States' K-12 Revenues. *Rockefeller Institute Policy Brief. Albany, NY: The Nelson A.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 Bae, S. & Gais, T.L. (2007). K-12 Education Spending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rop in State Revenues After Last Recession Continued in 2005. *Rockefeller Institute Policy Brief. Albany, NY: The Nelson A.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 Berne, R. & Stiefel, L. (1984). *The Measurement of Equity in School Finance*. Baltimore, MA: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McMahon, W.W. (1982).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for Educational Budgeting and Finance. In McMahon, W.W. & Geske, T.G. (ed.), *Financing Education: Overcoming Inefficiency and Inequity*, 1-32. Urbana, I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Oden, A.R. & Picus, L.O. (1992). *School Finance: A Policy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 Felipe de Jesus Calderon. (1996). *Presupuesto de Egresos de la Federacion Para el ejercicio Fiscal*. Camara de Diputados del H.Congreso de la Union.

접수일(2009년 9월 26일)

수정일자(2009년 10월 22일)

게재확정일(2009년 11월 19일)